

영화 시카고에 나타난 팜므 파탈의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박정혜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피부미용/메이크업 과정 강사

A Study about Femme Fatale Style Makeup in the Movie Chicago

Jung-Hae Park

Instructor, Dept. of Beauty Art and Busines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2006. 3. 12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keup done to two female protagonists in the film, "Chicago," and explore how this makeup - nonverbal communication means - is realized in the area of makeup presentation for femme fatale and how it is societally accepted. Makeup varies by the femme-fatale types, and the general female population can apply these for images they want to express. In the future research, it might be interesting to examine specifically which femme-fatale images are preferred in Korea and the makeup and clothing of Korean stars who primarily influence these images.

Key words: femme fatale(팜므 파탈, 요부), makeup(메이크업), the movie Chicago(영화 시카고), actress (여배우)

I. 서론

팜므 파탈(Femme Fatale)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나 신비한 아름다움을 무기 삼아 남성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남성을 유혹해 죽음이나 고통 등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숙명의 여인'을 뜻하는 사회심리학적 용어¹⁾로서, 동영상 매체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팜므 파탈의 이미지는 여러 분야에서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영향력도 큰 매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영화를 통해 표현된 팜므 파탈들은 배우 개인의 이미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짧은 시간에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즉 아름다운 연기자들을 동경하는 여성들은 매혹적인 팜므 파탈을 연기한 배우들의 치장을 모방함으로써 강렬한 이미지 연출을 꾀한다는 것이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²⁾에 나온 이영애의 붉은 아이 메이크업이 여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이영애가 모델로 있는 '아이오페'가 자사 제품을 이용해 효과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한 사례까지 있는 것을 보면 팜므 파탈을 표현한 메이크업 연출이 평범한 메이크업에 비해 얼마나 오래 기억되고 파급 효과가 큰지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얼굴 생김새가 인상 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큰 변수로 등장하는 메이크업이라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팜므 파탈의 메이크업 연출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메이크업으로 인한 여성의 극적인 이미지 변화를 살펴 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 고전적이면서도 뇌쇄적인 매력으로 팜므 파탈의 이미지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서린 제타존스(Katherine Zeta-Jones)³⁾와 연약한 인상을 무기로 이성을 유혹하는 르네 젤위거(Renée Zell-

wiger)⁴⁾가 주연을 맡은 영화 '시카고'에 나타난 두 주인공의 메이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팜므 파탈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메이크업과 그 내재적 의미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두 여배우의 의상도 분석하였다.

롭 마샬(Rob Marshall)⁵⁾ 감독의 '시카고(Chicago)'⁶⁾는 남자를 살해한 미모의 두 여인이 매스컴을 이용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용을 바탕으로 팜므 파탈의 전형적인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방하는 대중들의 심리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 수작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영화에 나타난 팜므 파탈의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타고난 얼굴의 생김새를 강조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색을 이용하여 형태를 변화시키고 직접적인 시각적 자극을 주는 눈썹과 눈두덩이 즉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립 메이크업이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메이크업으로 연출하고자 할 때에는 눈썹, 눈 자체의 형태를 바꿀 만큼 짙은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을 기본으로 뚜렷한 인상을 형성해 주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구체적인 색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영화에 나타난 팜므 파탈의 모습이 연기자의 실제 성격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미지여서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하고, 메이크업에 따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화에 나타난 팜므 파탈들이 대부분 악녀나 요부의 이미지로 정형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잔인한 미소로 남자들을 유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캐릭터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착한 여주인공보다 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게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녀의 이미지는 초창기 무성영화 시절부터 스크린에 등장했는데, 최초의 기획 스타라고 불릴 만한 여배우 테다 바라(Theda Bara)⁷⁾는 팜므 파

탈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1910년대 영화 제작자의 상업주의 전략이 탄생시킨 영화 사상 최초의 '요부'인 것이다. 그녀는 스타 시스템이 확립되기도 전에 '악녀'의 이미지로 열광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⁸⁾

테다 바라는 눈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한 메이크업과 특이한 표정으로 악녀의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A Fool there was'⁹⁾에서 남자를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뱀파이어로 등장한 다음부터는 악녀는 '뱀파이어(Vampire)'라고 부르게 되었다(그림 1)。



〈그림 1〉 뱀파 이미지의 테다 바라

테다 바라는 헬레나 루빈스타인(Helena Rubinstein)이 새로운 메이크업 제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색조화장품 개발에도 숨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그림 2〉 클레오파트라(1918)

1) 필름 누아르에 나타난 팜므 파탈

영화에서 팜므 파탈이 전형적인 유형을 띠게 된 것은 미국에서 필름 누아르가 번성한 1940년대 초부터이다. 필름 누아르는 1940-50년대에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범죄와 스릴러 영화를 칭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필름 누아르에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는 팜므 파탈들이 등장했는데 그 전형적인 작품으로는 존 휴스턴(John Huston)¹⁰⁾ 감독의 '말타의 매'(The Maltese falcon)¹¹⁾를 꼽을 수 있다. 이 영화는 험프리 보가트(Humphrey Bogart)¹²⁾가 주연한 미스테리물로 팜므 파탈로 등장하는 여주인공 매리 애스터(Mary Astor)¹³⁾는 물결치는 듯 한 굵은 웨이브 머리와 끝을 가늘게 뻔 눈썹, 또렷한 아이 라인과 마스카라 그리고 단정한 텁 메이크업으로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했다(그림 3)。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더 폭발적인 매력을 지녔다는 평을 얻은 '길다'(Gilda)¹⁴⁾의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¹⁵⁾는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이고 싶도록 사랑한다'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관능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표출하기 위해 탐스러운 웨이브와 또렷한 곡선 형태의 눈썹, 길게 불인 속눈썹과 크고 선명하게 그린 입술로 성적인 매력을 강조했다(그림 4)。

2) 필름 누아르 시대 이후의 영화에 나타난 팜므 파탈

'블루벨벳'(Blue Velvet)¹⁶⁾의 이사벨라 로셀리니(Isabella Rossellini)¹⁷⁾는 비정상적인 성적 유혹에 텁텁하는 밤무대 여가수로 출연하는 장면에서 짙은 블루 계열의 아이섀도와 붉은 입술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퇴폐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블루나 그런 계열의 짙은 아이섀도에 불투명한 붉은 입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숙함과는 거리가 먼 메이크업 패턴으로 인식되므로 무대용 메이크업 등의 특별한 경우에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그림 5).

'오리지널 씬'(Original sin)¹⁸⁾에서의 앤젤리나 줄리(Angelina Jolie)¹⁹⁾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악녀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 1800년대라는 시



〈그림 3〉 말타의 매(1941)



〈그림 4〉 길다(1946)



〈그림 5〉 블루벨벳(1986)

대적 배경에 비해 파격적인 진회색 스모키 메이크업과 연베이빛 립스틱으로 입술의 볼륨을 강조한 현대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그림 6). 이렇듯 본래의 입술에 볼륨감이 충분한 경우에는 붉은 립스틱이 아닌 입술색보다 열고 볼륨감을 강조하는 페리 들어간 립 메이크업으로도 성적인 매력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다. 브리짓 바르도(Brigitte Bardot)도 같은 맥락에서 1960년대에 누드 빛 입술을 뽐내며 남성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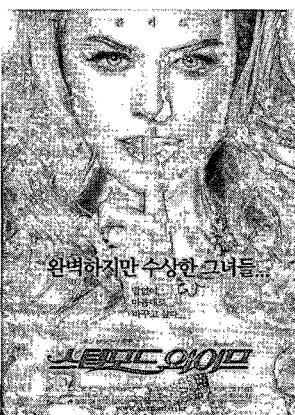
니콜 키드먼(Nicole Kidman)²⁰⁾이 출연한 '스텝포드 와이프'(The Stepford Wives)²¹⁾에서는 진밤색 짙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맹렬 여성방송인이 시골

로 내려가 인형 같이 예쁘고 순종적인 주부로 변신하는 장면에서 물결치는 웨이브의 긴 금발과 길고 풍성한 속눈썹, 아치형 눈썹에 핑크빛 립 메이크업을 했다(그림 7). 이것은 남성들이 머릿속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보다 여성미를 한껏 살린 메이크업이 더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즉 완벽한 머리와 메이크업에 성적인 매력을 갖춘데다 주부로서도 손색이 없는 나만의 '팜므 파탈'을 바라는 남성들의 심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팜므 파탈들은 외국영화 뿐만 아니라 '스캔들'²²⁾등의 한국영화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특



〈그림 6〉 오리지널 씬(2001)



〈그림 7〉 스텝포드 와이프(2004)



〈그림 8〉 스캔들(2003)

히 '스캔들'에서는 조씨 부인이라는 정숙한 명문가 부인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자를 파멸시키는 과정에서, 거울을 보며 짙은 다흥색 입술에 깨끗하게 정돈된 곡선형 눈썹을 그리는 장면이 나와 팜므 파탈로서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그림 8).

이렇듯 지금까지의 영화에서 팜므 파탈의 메이크업에 사용된 색상들을 보면 일반적인 색조화장이 전달하는 이미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연희²³⁾의 연구를 살펴보면 색조화장이 들어가지 않은 '베이직'한 메이크업이 가장 정숙하고 얌전하며 우아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며 짙은 자주색의 메이크업 패턴은 천박하고, 요염하고 경박하다고 지각되었다. 그리고 녹색 눈에 펄분홍 립스틱을 바른 '업투데이트' 패턴은 전보적인, 경박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갈색눈에 붉은 입술의 '클래식' 패턴은 섹시한, 성숙한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문영보²⁴⁾는 의복 및 얼굴 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화장이 긍정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기존 연구들만 보아도 메이크업에 의해 팜므 파탈의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팜므 파탈의 메이크업 표현도 기존의 색조화장에 의한 이미지의 범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모의 매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분적인 자기창조이다²⁵⁾. 이에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팜므 파탈의 이미지도 메이크업으로 표현과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영화 '시카고'의 여주인공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I. 영화 시카고에 나타난 팜므 파탈의 메이크업 표현

영화 '시카고'는 승전과 군수 사업 확장으로 경제력이 한껏 커진 192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로 인간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불나비 같은 매스컴의 허점을 비판한 영화이다.

1920년대는 대중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시대로 개방적인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효율성을 강조한 모더

니즘 복식이 유행하였고, 전반적인 실루엣은 보이쉬 스타일과 가르손느 스타일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패션의 변화에 발맞추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도 변모하여 젊은 머리에 앞이마를 덮고 눈까지 내려오는 모자를 썼으며 퍼머넌트도 유행하였다.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이 유행했는데 특히 직선적인 눈썹에 검은 아이섀도 그리고 짙고 붉은 립스틱이 인기를 끌었다. 영화 시카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각 인물의 개성과 상황에 따라 팜므파탈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1. 벨마

1) 벨마의 인물 분석과 의상

벨마는 남편을 죽인 후에도 피 묻은 손을 씻고 태연히 무대에서 공연을 마칠 정도로 대담한 인물이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직업과 독립성을 매우 중시하는 그녀는 변호사로서 최고의 입지를 굳힌 빌리를 고용해 무죄 선고를 받고자 하는데, 유사한 상황에 놓인 록시가 끼어들어 재판 날짜까지 빼앗자 최후의 반전을 노린다.

영화 속 벨마는 이러한 인물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에 맞는 차림을 바탕으로 영화라는 대중매체에 걸맞는 창의력을 가미해 보다 풍부한 스타일링으로 관객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그녀는 1920년대의 패션을 적극적으로 응용해 자유를 갈망하는 여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앞은 짧고 뒤가 길게 나온 그 당시 스커트와는 달리 앞뒤 길이가 모두 짧은 과감한 스커트에 맨다리를 드려내도록 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마치 앞에 있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듯 한 춤과 연기를 선보이는 장면에서는 스커트 햄라인에 화려한 술 장식을 달아 윤동적인 미를 더하였다.

한편 벨마가 법정에서 입고 나오는 의상들은 1920년대 상류층의 절제되고 고급스러운 옷에 모피 트리밍 상의에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2) 벨마의 메이크업

벨마는 변호사 빌리와 대중들의 관심을 록시에게 빼앗긴 후에도 시종일관 카리스마가 넘치는 성격을 어두운 메이크업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그녀의 어둡고 과감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눈매를 강조한 스모키한 아이 메이크업과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그림 10).

즉 벨마는 팜므 파탈의 세 가지 이미지 중에서²⁶⁾ 남성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 절투심이 만들어낸 잔인성과 섹시한 분위기로 남성을 유혹하는 선정성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웨이브기가 없는 직선적인 검은 뱅스타일의 짧은 헤어스타일로 록시와는 달리 고집스럽고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화려한 차림과 짙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 벨마는 팜므 파탈의 선정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그림 9). 이것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 변신을 꾀할 정도로 교활한 록시와는 달리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격상의 특징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캐서린 제타존스는 평소 다른 영화에 출연할 때에도 눈썹꼬리는 가로로 길게 빼고 눈과 입술을 동시에 강조한 메이크업을 하고 나와 성적인 매력을 극대화하여 비비안 리 등의 여배우들과 어깨

를 견줄만한 고전적인 미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 여성의 경우에도 성격과 메이크업은 깊은 연관을 보인다. 황상민²⁷⁾ 연구를 보면 성격 특성이 높은 집단이 선명하고 진한 색의 립스틱을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결점을 가리고 주름진 눈가에 화장을 하는 대신 입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한 흑발 여성의 눈두덩이와 입술을 동시에 강하게 강조할 때에는 그 효과가 더 강렬하다고 할 수 있다.

2. 록시

1) 록시의 인물 분석과 의상

록시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던 여자로 두 얼굴을 가진 팜므 파탈이다. 그녀의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수한 얼굴 뒤에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극단적인 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에 록시는 감옥에 갇힌 후 자신과 같은 죄를 짓고 감옥에 먼저 들어온 벨마가 매스컴을 이용해서 무죄판결도 받고 더 유명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벨마보다 한 수 위의 전략을 펼치는데,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에 맞는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재판장에서 남자에게 속아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가련한 여인의 홍내를 해야 했던 록시는 여성스



〈그림 9〉 법정에 선 벨마



〈그림 10〉 공연 중인 벨마



〈그림 11〉 법정에 선 록시



〈그림 12〉 인형 분장의 록시

러운 검정색 원피스로 소박하고 정숙한 하류층 여인의 모습을 나타냈다(그림 11).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상은 대부분 검정과 회색으로 벨마에 비해 무척 수수한 편이다. 그러나 무대에서는 비즈가 박힌 화려한 은색 의상으로 남성을 유혹하며 경쾌한 성격을 나타냈다. 한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술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반짝이는 검정드레스로 내재된 강인함을 드러냈다(그림 13, 14).

앞서 언급한 '스텝포드 와이프'뿐만 아니라 '신사 는 금발을 좋아한다'(Gentlemen prefer blondes)²⁸⁾ 등의 외국영화를 보면 금발 미녀는 순진하거나 연약하고 흑발 미녀는 생활력이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금발과 흑발에 대한 보편적인 선입견과 색이 주는 이미지가 복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록시의 메이크업

록시는 팝미 패탈의 주요 이미지 중에서 남성 스스로가 성적인 환상을 갖게끔 하는 신비함과 잔인성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다중적인 인물이고, 메이크업 또한 이러한 성격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록시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순수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연출했다. 헤어스타일은 연약해 보이는 옅은 금발에 부드러운 웨이브를 주었는데 볼륨을 살리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꾸민 듯 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주의했다(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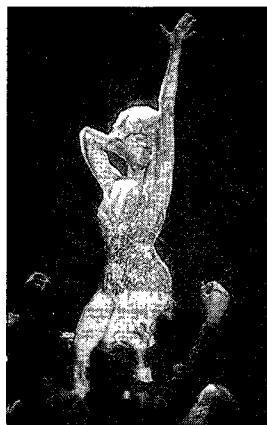
림 11〉

메이크업 또한 같은 맥락에서 눈썹은 본래 색을 살린 중간 톤의 갈색으로 살짝 길게 꼬리를 빼 그렸으며 아이라인으로 눈의 형태를 왜곡하지 않고 가볍게 음영만 주었다. 그러면서도 입술은 여성미를 한껏 드러내는 따뜻한 붉은 색을 선택해 자칫 창백해 보이기 쉬운 이미지를 보완했다. 〈그림 12〉는 록시가 빌리의 꽈두각시 역할을 할 때의 모습으로, 살아 있는 인형처럼 과장된 눈썹과 속눈썹 화장에 불려져까지 진하게 바르고 있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무죄를 호소하는 수수한 여인과 대비되는 환상 속 팝미 패탈이다. 이는 환상 속에서 빌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고 순진한 록시가 현실에서도 남자에게 이용당하다가 실수로 남자를 살해했다는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설정된 장면으로, 록시 외에 기자들까지 모두 변호사 빌리의 인형이 되어 움직인다. 그뿐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면서 록시가 유명해지자 록시처럼 생긴 인형과 록시의 헤어스타일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감옥 간수까지 록시를 모방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유명해진 팝미 패탈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록시의 경우 특히 현실 속 모습과 환상 속 모습이 대비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 즉 환상 속에서는 언제나 현실보다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에 호소력 짙은 노래를 부르며 내재된 강인한 성격과



<그림 13> 총을 든 록시



<그림 14> 환상 속에서 매력을 뽐내는 록시

<그림 15> O.P.I 광고²⁹⁾

욕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순진한 걸모습을 하는 등 록시의 성격 변화가 의상과 메이크업의 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를 연상시키는 춤동작과 노래는 진정한 요부로서의 록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메이크업으로 표현하는 것은 얼굴을 캠버스로 이용해 강렬하면서도 깊은 매력을 지닌 여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주는 인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동성과 이성의 이목을 끌고, 대중매체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불특정 다수의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얼굴의 이미지는 눈, 코, 눈썹 등과 같은 세부 요소들이 조화에 의해 결정되는데, 눈두덩이와 입술은 피부색과 동떨어진 색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적인 자극을 가장 많이 주고 또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메이크업의 효과를 우연에 맡기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조절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화에 나오는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선택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5>는 영화 ‘시카고’의 분위기를 참고하여 제작한 네일제품의 광고 포스터로서 이 영화가 아직까지도 대중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팜므 파탈이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점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시각에서 평가되는 이미지를 담고 있으므로 여성의 시각에서 봤을 때 평범한 수준의 메이크업도 남성에겐 매우 자극적일 수 있다. 특히 팜므 파탈과 ‘요부’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요부의 이미지는 ‘남성이 만들어내고, 여성이 활용해왔다’라고까지 할 수 있다³⁰⁾. 결과적으로 영화 ‘시카고’에서도 변호사 빌리가 두 여인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교묘히 이용해 둘 다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자신의 명예도 높여 남성과 여성 모두 원하는 바를 얻는데 성공한다. 즉 성적인 매력이 넘치고 잔인성을 지닌 여인과 순수한 신비한 여성의 이미지를 이용하였고, 두 여주인공은 눈두덩이에 젖은 스모키 메이크업과 윤곽만 살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일반 여성들도 색다른 매력을 표출하기 위해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친 메이크업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직업이나 나이 등의 개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가수, 영화배우 등은 자유로운 연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효리’ 등의 여가수들은

이른바 '섹시코드'를 전면으로 내세워 현란한 조명 아래 화려한 메이크업과 옷으로 치장하고 대중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영화배우들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므로 팜므 파탈의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사한 배역을 맡지 않거나 그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선호되고 있는 팜므 파탈적인 이미지와 그에 영향을 주는 대중 스타들의 메이크업과 의복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 1) 네이버 백과사전, 2006.
- 2) 이영애, 최민식 주연, 박찬욱 감독의 2005년 영화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여인의 복수극을 그리 영화이다.
- 3) 캐서린 제타존스(1969), 마스크 오브 조로(1998), 터미널(2004)등에 출연, 벨마 역할로 제9회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주연상 수상했다.
- 4) 르네 젤위거(1969), 브리짓 존스의 일기(2001), 콜드 마운틴(2003)등에 출연. 록시 역할로 제9회 미국배우조합상 여우주연상과 제61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했다.
- 5) 롭 마샬(1960), 게이샤의 추억(2005)등을 감독했으며 '시카고'로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 6) 2002년 롭 마샬 감독 작품으로 제61회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수작이다.
- 7) 테다 바라(1885-1955), 클레오파트라(1917), 살로메(1918) 등에 출연하여 기획사에 의해 만들어진 팜므 파탈 이미지의 스타로 각광받았다.
- 8) 주간지 시티라이프, 2002년 8월 24일, 17p
- 9) 1915년 영화로 점잖은 외교관이 탐욕스러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내용이다.
- 10) 존 휴스턴(1906-1987), 말타의 배로 데뷔해 차이나타운(1987)등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 11) '말타의 배'라는 한국제목으로 알려진 1941년 영화로, 전귀한 골동품을 둘러싼 범죄사건을 중심으로 한 영화이다.
- 12) 험프리 보가트(1989-1957), 카사블랑카(1942) 등에 나와 냉혹한 개성연기로 각광받았다.
- 13) 매리 애스터(1906-1987), 미인대회 출신으로 신시아(1947)등에 출연했다.
- 14) 1946년 영화로 카시노 보스의 아내와 부하의 파멸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 15) 리타 해이워드(1918-1987년), 상하이의 여인(1947)등에 출연한 그 당시 대표 미인이다.
- 16) 1986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 작품으로 새디즘을 소재로 한 특이한 영상으로 컬트무비 대열에 긴 영화이다.
- 17) 이사벨라 로셀리니(1952), 백야(1985)등에 출연했다.
- 18) 2001년 작품으로 아내를 잃은 순진한 남자가 팜므 파탈의 유혹에 빠져 같은 범죄자가 되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9) 안젤리나 졸리(1975), 현재 미국에서 대표적인 팜므 파탈 이미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작으로 알렉산더(2004)등이 있다.
- 20) 니콜 키드먼(1967), 1995년 '투데이포'에서 영화사에 남을 팜므 파탈의 역할을 맡아 각광받았다.
- 21) 2004년 프랭크 오즈 감독 작품으로, 아내를 완벽한 로봇로 바꾸려는 남자와 그 남자를 궁극적으로 조절하는 여자의 미스테리를 담고 있다.
- 22) 2003년 이재용 감독 작품으로, 정숙한 조선여인의 이면의 욕망으로 인해 파멸해 가는 주변 인물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 23) 이연희, 양취경(200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분 색채화장 이미지지각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3/4).
- 24) 문영보(1991), 의복 및 얼굴 변인에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Workman, J.E. & Jhonson, K.K.P.(1991). The role of cosmetics in impression formatio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 63-67.
- 26) 남선미(2004), 회화속 등장인물의 팜므 파탈 이미지 분석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황상민 외(1999), 색채 이미지의 심리적 분석 : 소비자 성향에 따른 색채 화장과 구현된 색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동계학술대회지*, pp. 23-32.
- 28) 1953년에 혹발의 제인 러셀과 금발의 마릴린 먼로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이다.
- 29) 2006년 미국에서 발간에는 여러 패션지에 개재된 네 일용품 브랜드 O.P.I의 광고로 영화 시카고에서 영감을 얻었다.
- 30) Temptress(2004). *Jane Billinghurst*. Greystone books, pp. 15-16.

잉그리드 버그만의 딸로도 유명하다.